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다가오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일원에서 조내기 고구마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운영한다.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조내기 고구마구마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조내기 고구마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커피마대와 에코백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가정에서 고구마를 쉽게 재배하는 법을 체험하면서 환경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참가대상은 부산 지역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SNS에 매월 고구마 재배일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고구마 재배일지 SNS 게시물은 10월 중 수확시기에 확인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5월 16일 목요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1일 2회 총 60팀(각 회차당 15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habataku@korea.kr)로 접수하거나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또는 영도구청 3층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